

News

3월 은행 대출 증가세 주춤…관리 약발 먹혔나

뉴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3877억원으로 집계. 지난 2월 말 135조1843억원과 비교해 2034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잔액 기준 모두 증가했지만 계속해서 커졌던 증가폭은 진정. 2월 가계대출, 주담대,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은 각각 3.8조원, 3.76조원, 3.2조원으로 3월 대비 더 컸다.

은성수 "이달 중순 가계부채 방안...50년 모기지 연구해 볼만"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지난해 8.8% 증가했는데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DSR 규제를 확대해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내놓은 '50년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현 "빅테크 성장에 은행 중개 약화…시장 전반 볼 것"

뉴스

윤석현 금감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최고위급 회의에서 빅테크 기업의 성장으로 은행 중개역할 약화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어 총체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 이날 회의에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장, 영란은행 총재 등이 참석. 회원국들은 비은행금융증개 규모 확대에 따른 위험 요인, 대응방향을 논의.

한국금융사마저 덮친 미안마 '유혈사태'

매일경제

미안마 군부 쿠데타로 이곳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신한은행 양곤지점의 한 직원은 차로 귀가하던 중 피격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은행·카드·보험·소액대출(MFI) 등 28개 국내 금융사가 미안마에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을 두고 진출해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 4곳 '통합 플랫폼' 구축

한국경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카드와 공동 시스템 구축·운영에 나선다고 1일 각각 공시했다. 이를 위해 삼성생명은 142억6900만원, 삼성화재는 173억7300만원을 부담. 삼성증권도 구체적인 부담액 공시 예정. 보험, 카드, 증권의 가입자 정보의 결합으로 다양한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 삼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단숨에 업계 1위

디지털타임스

한화생명은 1일 자회사 GA(독립보험대리점)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당사는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FP 규모는 현재 업계 1위인 GA보다 20% 이상 크고, 불완전판매율(0.06%)이 GA시장의 업계 평균(0.24%)보다 낮다. 전속상품 판매량은 대형 GA 5개사 매출액의 2배 이상

'리스크' 나눌 재보험 계약해? 말어? 고민 커진 생보사들

뉴스토마토

공동재보험은 이차역마진 위험 부담 경감 등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에 보험사들이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막대한 가입 비용이 주원인. 제로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어 재보험사에 넘길 위험 규모가 만만찮다. 신회계제도 도입이 2년간 미뤄지면서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학개미 靑청원 "공매도금지 6개월 추가 연장, 완벽한 제도 개선" 요구

이데일리

회원 수 4만 4000여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이날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적폐 청산,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합니다!'란 청원을 등록. 한투연 측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끝나는 5월 2일 이전에 20만명 동의를 얻어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등 금융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